朝鮮日報
第二夕刊
十三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專賣特許 ツヨナール スフ人絹保强劑

# 聖上, 京都御發輦

## 午後四時四十分東京着御

【京都電話同盟】光輝있는紀元二千六百年, 慶祝하옵게도 天皇陛下께옵서는 神宮參拜를 始하사 神武山陵, 桃山, 泉山諸陵, 橿原神宮에 親히御參拜, 時局下의 安泰를 御祈念하옵셨는데 國內四日間의 御日程을 御無事하옵시게 마치옵시고 드디어 十三日京都御發輦하옵셨다 이날아침 陛下께옵서는 京都御苑의 때와 가트옵시게 御軍裝, 大勳位以下 各種勳章을 御佩用, 侍從長, 侍從武官長을 從하옵시고 松平宮相, 木戶內府以下를 거느리옵시고 午前八時十五分 京都御所御出門, 略式自動車御列로 各種團體, 一般市民等 奉送申上하는 속을 京都驛에 御着하옵시어 御召列車에 오르옵시니 ... 殿下께옵서 奉送申上하옵시어 小休하옵시니 ...

### 名古屋御通過

【名古屋電話同盟】御召列車는 午前 十一時五十四分 名古屋驛에 御着, ... 一般市民의 奉迎裡에 同五十分 發車 ... 午後四時四十分東京驛에 着御 ... 五日만에 宮城에 還幸하옵시었다

# 重慶側陣營에 龜裂

# 第三和平運動擡頭

## 中心人物은 雲南省主席龍雲

【香港十三日發同盟】重慶政權이 逢着한 一般的危機의 昇進에 依하여 支那側의 交戰陣營派는 動搖하여 地盤에 一大龜裂을 免하기어려운 形勢에 있다 卽 重慶政權部內에 어떠한 合理的和平論이 擡頭하여 오는外에 此種 和平論과는 別個로 全面的 和平의 促進을 目的으로 하는 第三勢力의 結成運動이 進捗中이라고 한다 이 新政治勢力의 中心人物은 過般汪政權成立事件의 展開以來 重慶과의 關係가 尖銳化하여진 雲南省政府 主席 龍雲이다 事態의 重大性을 看取한 蔣介石은 現在 將作賓을 昆明에 派遣하여 龍雲의 慰撫를 시키고 잇는데 對立緩和의 見込은 없고 雲南土着派의 軍政客들은 모두 龍雲의 政治的立場을 支持하고 잇는 外 身病靜養을 爲한다 稱하고 昆明에 滯在中인 國民黨元老 李烈鈞, 政學系領袖 李根源等을 爲始하여 香港에 잇는 反蔣派의 巨頭 許崇智, 徐謙, 鄒魯, 李思浩等도 龍雲과 氣脈을 通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現在 反蔣派의 廣東系 實力派를 糾合하여 桂林經由로 當地에 온 것도 第三勢力結成運動에 參加하기爲함이라는 說이 有力하여 重慶側은 問題의 推移를 注視하고 잇다

### 和戰派別

【香港十三日發同盟】和戰問題에 對한 態度에 依하여 重慶政權部內及部外의 各派를 區別하면 大體다음과 갓다

一、合理的 和平論者(現下의 內外情勢에 비추어 合理的和平의 時期가 이미 到達하였다고 認定하는者) 林森, 戴傳賢, 許止, 李石曾, 鄒魯(元老派) 何應欽, 許世英, 何成濬, 張公權, 吳鼎昌等(以上知日派) 陳介, 劉文島, 楊杰, 朱家驊, 陳立夫等(以上親獨派) 孔祥熙, 顧維鈞, 王寵惠(以上歐美派) 閻錫山, 龍雲, 唐繼堯, 薛岳, 李濟琛, 陳誠, 黃紹雄等(以上地方實力派) 張君勱(國家社會黨) 左舜生(國家主義靑年黨)

二、反戰論者(아직時期가 到來하지안코 日本을信賴할수업다는者) 孫科, 宋慶齡, 馮玉祥, 邵力子(以上親蘇派) 李宗仁, 白崇禧, 伯鈞等(以上廣西派) 黃琪翔, 嚴重, 李濟深, 蔣光鼐(以上第三黨)

三、超然派(表面抗戰繼續을 標榜하면서도 合理的 和平에도 反對는 아닌者) 蔣介石, 宋子文, 葉楚傖, 劉峙, 宋紹良, 衛立煌其他 將領系將領監衣社等

### 外人側重慶爆擊報道

【香港十二日發同盟】外人側으로부터 入手한 確實한 情報에 依하면 十二日我空軍精銳〇〇機는 大擧敵都重慶을 猛襲하여 敵軍政機關에 大型爆彈을 퍼부엇는데 이때문에 市上空에는 數條의 大黑煙이 冲天하여 損害는 莫大한 것으로 보인다

### 訪伊使節一行 豫定을 變更

【羅馬十二日發同盟】羅馬에 滯在中인 佐藤使節團一行은 伊太利의 參戰에 依하여 邦船의 나포리寄港이 不可能하게되엇슴으로 豫定을 變更하여 各地를 視察한 後 六月末伯林에 集合하여 同地에서 復路西伯利經由로 歸國하기로되엇다

### 駐日埃及公使着任

【東京電話同盟】新任의 駐日埃及公使 니코라스·카리론씨氏는 十三日午前八時四十五分 東京驛着列車로 入京, 驛頭에 出迎한 公使館員等과 함께 ...

# 重慶서 大空中戰

## 六月以來卅五機爆破

【〇〇基地十二日發同盟】陸의 荒鷲小川, 松山, 鈴木, 片倉各部隊의 大編隊는 十二日午後二時十分 重慶에 對하여 第二次攻擊을 敢行하엿다 이날 四川은 晴明하엿는데 勇猛한 我荒鷲는 〇〇基地를 進發하여 一路敵都重慶에 到達하엿는데 一方 빠르게 도 待機中인 敵戰鬪機 十六型 十五與 二十數機는 我空中艦隊에 挑戰하여 왓엇다 어리하여 敵機의 亂飛하는 重慶市街上空에 大空中戰이 展開되엇다 이동안 我編隊는 一絲不亂하게 敵의 堅陣으로 悠悠히 今日의 目標인 陸軍兵工廠에 進擊하여 巨彈을 퍼부엇다 十一日의 襲擊에 伴하여 敵飛行機 一機 또 一機 擊墜하엿다 我荒鷲의 威力을 如實히 發揮하엿다 我損害는 〇機로 四川 一帶에 北村一團長機(北村(?)) 自爆하엿는데 이때 我 北村一團長機의 急降下 反轉하려고 하여 自爆 六型戰鬪機는 反轉脫의 時機를 놓쳐 北村機의 날개에 衝突하엿는데 그瞬間 敵은 卽時 分解되어 散散히 되어 北村機는 自機의 날개를 失하고 小破하엿을뿐으로 悠悠히 歸還하여 이리하여 이날의 空中戰에서 敵戰鬪機 十三機를 確實히 擊墜하엿다 그리고 若干不確實한것도 一機 上에서 加하여 지난 六月以來 我荒鷲의 重慶攻擊에서 確實히 擊墜한 敵機는 二十二機 不確實한것 十二機 合計三十五機에 達하엿다

### 宜昌掃蕩完了

### 中支軍에서 發表

【宜昌前線에서十二日發同盟】中支軍은 十二日宜昌市外 掃蕩을 完了하엿다고 다음과 가티 發表하엿다 宜昌周邊에 進展되어 北方兵團은 部隊大巴山系 襄陽에서 依하여 各處에서 頑强히 抵抗하는 敵을 擊破하며 岡山系를 縱斷하여 宜昌平地北部로 進出, 南方兵團은 漢水西岸地區의 作戰은 極히 有利하게 進展되어 ...

### 獨逸空軍 敵主力艦에 命中彈

【伯林十二日發同盟】獨軍司令部는 十一日 發表에 依하면 獨空軍은 十一日 르·아브르港의 敵艦船攻擊에際하여 大型驅逐艦 二隻을 大破하엿다

### 루앙은 佛軍確保?

【로마十二日發同盟】獨軍司令部는 十二日 세느下流의 要衝 루앙은 獨軍의 手中에 이미 二日前에 獨軍의 手中에 들엇다고 發表하엿는데 佛軍은 아직 루앙은 確保하고 있다고 發表하엿다

# 驅逐艦十八隻購入

## 聯合軍, 米國으로부터

【倫敦十二日發同盟】BBU放送이는 一般에 入型驅逐艦을 命中시키엿다고 聯合國軍은 米國으로부터 驅逐艦十八隻을 購入하엿다고 放送하여 注目을 끌고 잇다

### 알라스카空軍基地

### 米國防備强化發表

【華盛頓十二日發同盟】오늘 陸軍은 알라스카의 陸軍兵力을 强化하기 爲하여 步兵一個大隊, 砲兵一個中隊, 工兵一個中隊, 其他諸部隊를 近近알라스카에 派遣하기로 되엇다고 다음가티 發表하엿다 ... 現在建設中의 空軍基地防衛를 爲하여 알라스카의 地上部隊를 强化하기 爲하여 ...

### 英佛伊三國大使

### 莫斯科에 着任

【莫斯科十一日發同盟】크립스英大使는 十二日 新任駐蘇伊大使는 十二日 陸路로 모스크바에 到着하엿다 一方 新任駐蘇佛大使도 十一日 莫斯科에 到着 ... 列國의 動向에 微妙한이때 三國大使의 今後의 外交的活躍은 注目되는 바이다

### 一週間에 英佛機 五百機擊破

【伯林十二日發同盟】DNB通信에 依하면 十二日 過去一週間內에 獨空軍이 擊破한 英佛機는 合計五百十五機에 達한다 ... 獨軍損失은 僅 五十八機에 不過하다고 發表하엿다

### 人事·集會

◀三橋孝一郞氏(警務局長) 渡東中 十五日午前七時五十分京城驛着列車로 歸任豫定
◀諏訪修氏(新任總督府外事部長) 二十二日午後一時四十五分『아카기』로 着任豫定
◀鹽原時三郞氏(總督府學務局長) 平南北地方學事視察 十四日午後九時五十分京城驛着으로 歸任豫定
◀李家源甫氏(總督府學務課長) 平南北地方出張中 十五日午前七時二十分京城驛着歸任豫定
◀信原聖氏(總督府文書課長) 全南地方出張中 十四日午前七時二十分歸任豫定

# 巴里郊外(十九粁)에 肉薄

## 獨逸軍의 追擊大進捗

【伯林十二日發同盟】獨軍司令部當局談

一、獨軍은 이미 루앙, 랑스, 콘피에뉴等 諸都市를 占領하고 세느·마르느兩河를 各各 數個所에서 渡河, 그 最先鋒은 巴里郊外十九키로地點에 進出하엿다

一、獨軍右翼은 이미 二萬의 聯合軍을 捕虜로하고 目下 二方面에서 作戰中이다

卽 一部는 聯合軍을 海峽方面으로 壓縮하며 또·아브르占領을 目的하고 他方세느河下流를 進擊하며 마르느河 方面의 友軍과 協力하여 佛軍을 巴里週邊으로包圍殲滅하려고 하는것이다

# 佛軍必死的防戰

【로마十二日發同盟】佛軍은 今日아직 람스를 死守하고 必死의 防戰을 하고잇는데 이方面의 獨軍兵力은 步兵五個師團, 二個裝甲師團이다

一、巴里北方 오와즈戰線에서 佛軍은 콘피에뉴, 아이용을 退却하여 산리·라·메르렉, 미로(巴里西北方向(?)六〇키로)地點에서 目下 獨軍의 進出을 阻止하여 이와 激戰을 展開中이다

一、마르느戰線에서 佛軍은 샤토·티에리·모의線에 後退하엿는데 巴里西部方面에서는 佛軍은 猛然果敢한 反擊을 일으켜 베르론附近에서 獨軍을 再次 세느河를 渡河하여 後退하려고 猛反擊中이다 獨軍은 目下 세느河右岸을 確保하고 잇다

一、獨軍은 目下巴里包圍戰線에 百個師團百五十萬의 兵力을 使用하며 獨軍은 使用할수잇는 모든 自動車, 手押車를 驅使하고 잇다 이에對하여 佛軍은 戰車隊步兵部隊를 出하여 阻止하여 反擊을 加하고 잇으나 死守할 地點을 確保치 못하고 일부 部隊는 退却하여 아직 陣地를 構築하지 못하고 잇다 佛軍은 아직 아직 後方部隊를 갓지 못하엿다

### 獨軍戰況發表

【伯林十二日發同盟】獨逸大本營 發表에 依하면 獨逸軍은 이미 三方面으로부터 巴里를 包圍하려고 하고 잇다

一、巴里西方 오와즈河方面을 進擊中인 獨軍은 巴里까지 겨우 二十키로에 迫到하고 잇는데 一、루앙을 數日來 이미 獨軍의 手中에 들어 세느河 下流 數個所에서 세느河를 渡河하엿다 一、巴里北方 四十키로의 산리(巴里北方 四十키로)는 二十키로의 地點에 進出 一、콘피에뉴(巴里北東七十二키로)의 佛軍陣에도 이미 到達하엿다

### 土參戰猶餘

【앙카라十二日發同盟】土耳其政府는 十二日 伊太利의 參戰에 依하여 民及 세느에오와즈, 세느·에마른三縣에 交通機關其他公共事業을 지키고 首都防衛를 하라고 命令하엿다

### 巴里防衛手配

【巴里十二日發同盟】獨軍의 進擊에 巴里市民은 지금 重大危機에 直面하엿는데 巴里防衛의 時事行動을 取하지 안코 黨國의 各種官廳에 全力을 集中하기로 決定한것으로 보여 政府는 近近 그것을 否定하기로 發表하기로 되엇다

一、獨軍은 南方地區는 巴里의 手中에서 退却하는 敵의 戰車를 連破하고 세느河에 達하엿다 ...

### 蘇聯大使

### 헐長官과 會談

【華盛頓十二日發同盟】우만스키 蘇聯大使는 十二日國務省으로 헐長官을 訪問하고 한時間동안 刻下國際情勢裡의 兩國의 態度에 對하여 協議하엿다 그러나 會談의 內容에 對하여는 何等情報도 없다

### 黑海地中海의 羅馬船의 歸國命令

【부카레스트十二日發同盟】羅馬尼亞政府는 十二日 黑海, 地中海上에 잇는 同國船舶에 對하여 卽時 羅馬尼亞港으로 歸港하라고 命令하엿다 이에關하여 官邊에서는 地中海에 戰爭狀態가 되엇으니 航行禁止를 不得已하게 하엿다고 言明하엿으나 왜 黑海까지 그 範圍에다 包含하엿는가에 關하여는 何等說明하지 안는다

# 胎動하는 新黨運動

## 新黨과 人物問題

### ④ …… 李甲燮

前回에서 오늘날 帝國의 現實은 아와 될것이다. 그러면 日本에도 이와 그政治體制를 全體主義的인 方向으로 急轉回시키지 안흘수업다 그러고다 이러케 보아오면 이것 또그러기 爲하여는 新黨이 時局의 擔當者가 되여가지고 革新的인 新文化―新東亞文化―를 建設하지안코는 안된다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면 帝國의 現實이 强調하고잇는 이理想과 政界의 實情을 對照하면서 다시 한번 新黨의 實現性을 忖度해보기로하자 全體主義의 政治體制는 반드시 革新精神에 불타는 優秀한 指導者를 要求한다 그리고 그指導者는 民衆에게 對하여는 거의 神에가까운 英雄的 存在에까지 昇揚되지 안흐면안된다 우리는 이것을 全體主義의 原産地 伊太利에서도 보앗고 또 나치스獨逸에서도 그實例를 보고 ...

(이하 본문 생략 없이 판독 가능한 범위: 日本에는 社會的으로나 思想的으로나 여러가지 點에잇서 달른바잇거니와 特히 自由主義思想이 튼튼한 旣成文化의 勢力 乃至 地盤을 過小評價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再考를 要하는 것은 事物의 歷史的 發展性이라는 點이다 歷史에 依하면 次期政局擔當者는 近衛公이라고 하는 說이 지배적이다 ... 近衛公의 動向을 豫測하는 것은 重大한 關係를 가지고 잇다 ...)

### 八面鋒

◇ 伊空軍은 말타島와 아덴港에 敵襲

◇ 英海軍은 伊國의 潛水艇을 擊沈

◇ 地中海上의 海戰이 벌어질 것

◇ 佛伊國境은 삼각, 그러나 巴里西北二十粁엔 벌서 獨軍이 出現

◇ 佛國의 運命을 決하는 大會戰 今後數三日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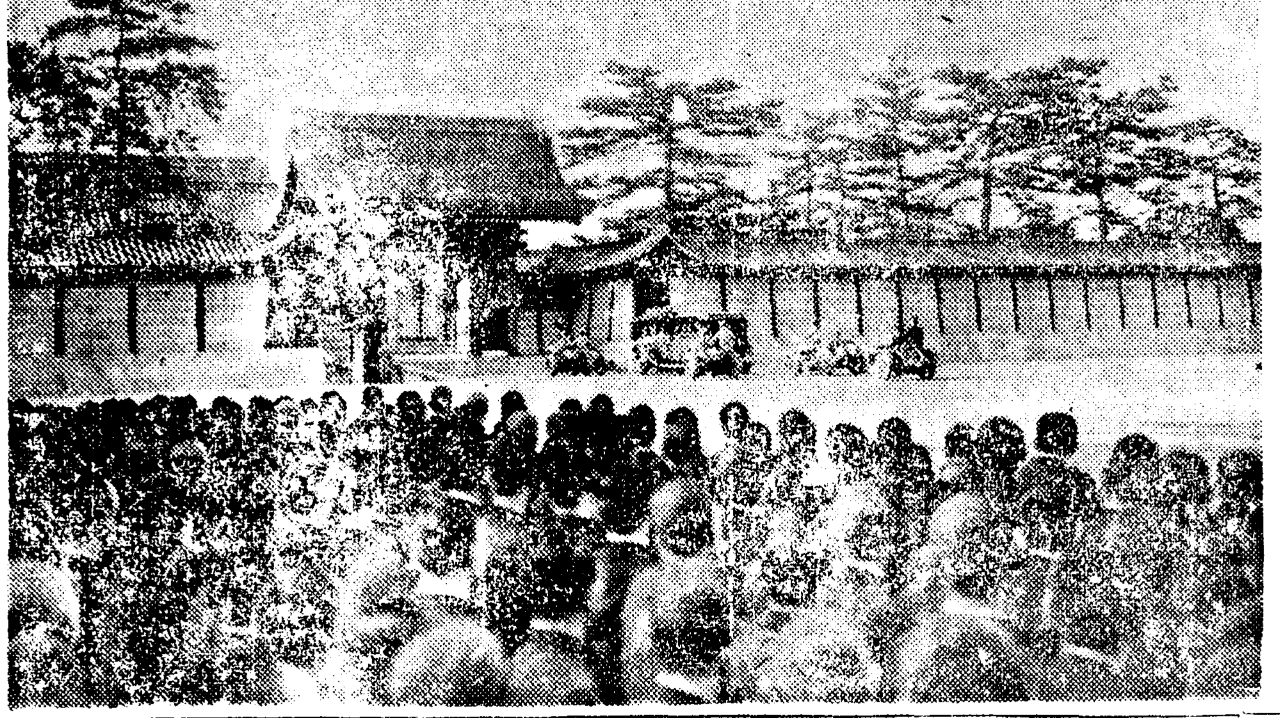
◇ 歐羅巴 戰爭이 커지는 판에 極東에서는 進行되는 大戰捷은 아손것

◇ 重慶서 宜昌까지 四五百粁 이것을 十日間에 進擊한다는 것은 一種의 電擊作戰

◇ 況 漢水險山을 넘어 三方面으로 드러간 宜昌攻略이라

◇ 滿蘇間엔 國境協定, 日泰間엔 友好協定, 그리고 日支基本條項決定

◇ 極東의 地位 더욱 安固



聖駕御無事히 京都皇宮에 御着輦(九日謹寫)

貧血 結核 治療豫防 胃腸 機能强化
ネオ肝精
먹기쉬운 肝油精劑
牛肝臟 膽汁配合
發明特許
藥價 低價
五〇錠 二·〇〇
一〇〇〇錠 六·〇〇
三〇〇〇錠 一五·〇〇
御試用見本及び「新榮養讀本」無代進呈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日本橋區本町
京城府西小門町
奉天大和區加茂町
NK1504

# 四人도時局認識徹底
# 全朝鮮에約二千名減
## 犯罪의溫床累犯者取扱適法講究
## 戰時下民心緊張의一面相

당하나를 격하여 세상중시 일반민중의 시국인식이 철저하야 이십일부터 열리는 형무소장회의에 …

愛國獻金遝至

# 여름放學期間短縮
## 小學校는五日을주려冬休에加算할方針
## 中學校는學則變更코자校長會議召集

여름방학을 단축할 방향으로 지…

# 公定價格을매라고
# 자최감춘파리藥
## 쓸때감추는얄구진商人心思

전염병의 매개물인 파리가 한창일 때에 …

노신만히먹고苦悶

### 價格의公定은 안할작정이다
物價調整課長談

# 鐵道와船舶은除外
# 道路交通量만調査
## 三期에分하여各都市에서

### 北鮮鐵道引繼委員會開催

### 日泰定期第一機 松風號盤谷安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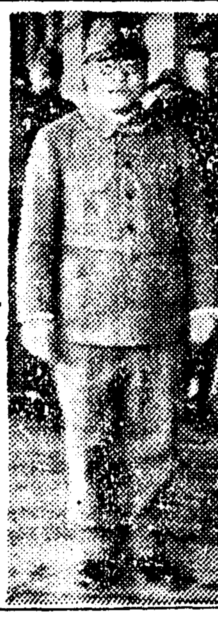
### 花籤詐欺만否認
中央無盡事件第三回公判

### 痢疾을豫防!

### 惠化小學校同窓會

# 買出票使用에汚點
## 本町署에서廿八名을摘發

### 進行列車에跳入



# 보리비기가한창
## 모짜리의成績도良好
### 忠南北視察안大野總監歸任談

### 貯蓄奬勵포스타 小學生作品募集

# 好績의人事調停法
## 關係者에所感과希望을募集

# 卅萬圓金密輸事件
# 廿名一黨今日送局
## 外國爲替管理法違反罪로

# 摘發되는惡家主
## 鍾路署에서또廿名을膺懲

### 麗水博多間航路 期成金組織運動

### 長連에火災

### 東亞競技關西大會 今日嚴肅히開幕
選手團七百餘名集合

### 中等野球리그 十六日의龍山서擧行

### 府民實業庭球

### 門鐵軍의陣容 京城서三개일擧行

### 明治立教에게敗하면 明慶立軍同率

### 東亞競技關西大會 明十四日의順序

### 今夜의라디오


肺病은必治?

兒童映畵『동무』 全國一齊公開

內科 神經科專門 李重澈醫院 主治醫 醫學博士 李南 醫專學士 李重命 李重澈

中風、半身不遂、動脈硬化에는 心臟病、內腫、痰腫에는 原因療法을하여病뿌리를업새야납니다

流行歌 南国의밤 金英椿 Columbia

日本勸業證券 推奬債券 第十五回貯蓄債券 第十一回 第十二回貯蓄債券 京城支店

府內某邸宅短期賣出し 東京建物株式會社分讓部

醫學博士 三浦良雄 三浦外科 入院病室完備

松の實ミルクキャラメル 京城菓子株式會社

コドモのねびえかぜに オイ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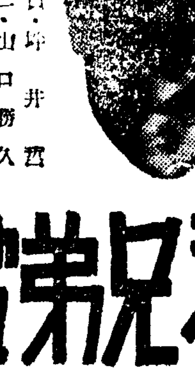
全快率100% クトリン 強力治淋劑! 適應症 急性並慢性淋疾 副睾丸炎・膀胱炎 子宮帶下症・丹毒 淋毒性諸疾患等 慈善堂製藥株式會社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年藥 百補丸 百補丸會社

ヤパハンモア 藥用크림 여드름 죽은깨 기미 빼는

京城特許代理局 內外國特許商標事務

元祿兄弟鑑 十三日ヨリ 皇國の妻 同時上映 明治座



皇國の妻 絶讚上映中 明治座

養蜂 蜂蜜 富民養蜂場

神經衰弱療法 朝報案內 家屋廉價 新職業 薬品 審圭浣齒科 生徒募集 梅毒、淋病 內科、眼科 全治醫院 アイスケーキ 大同商會 興亞榮養化學工業

# 學藝

# 明日에 企待하는 人間타입

## 外來語表記法抄
朝鮮語學會發表 【2】

### 母音

ㅣ
fon(希i:on) 이온(電離子)
lady(英leidi) 레이디(貴婦人)
ich(獨iç) 이히(我)
Imbiss(獨imbis) 임비스(間食)

ㅔ
egg(英eg) 에그(卵)
cafe(佛kafe) 카페(茶店)
air(英ɛə) 에어(空氣)
lacet(佛lasɛ) 라세(紐)

ㅐ
ambition(英æmbiʃən) 앰비션(成功心)
ham(英hæm) 햄(鹽豚肉)

ㅏ
academie(佛akademi) 아카데미(大學)
contrat(佛kɔ̃tra) 콩트라(契約)
arch(英a:tʃ) 아치(弓形門)
nougat(佛nuga) 누가(菓子名)
umpire(英ʌmpaiə) 엄파이어(審判者)
homerun(英houmrʌn) 호므런(本壘打)

ㅗ
opera(佛opera) 오페라(歌劇)
apologue(佛apolɔg) 아폴로그(寓話)
Oboe(獨obo:e) 오보에(大笛)
Oslo(諾oslo:) 오슬로(地名)

ㅜ
Ukraine(獨ukraine) 우크라이너(地名)
Donau(獨do:nau) 도나우(河名)
Umlaut(獨umlaut) 우믈라우트(曲母音)
Faunus(羅faunus) 파우누스(牧神名)

ㅓ
earth(英ə:θ) 어드(地)
tailor(英teilə) 테일러(洋服師)

ㅚ
Öhr(獨ø:r) 외르(針孔)
heureux(佛œrø) 외뢰(幸)
Örtchen(獨œrtçən) 외르트헨(小村)
Hölle(獨hœlə) 횔레(地獄)

ㅟ
uranus(佛yranys) 위라뉘스(天王星)
Heu(獨hɔy) 호위(乾草)
füller(獨fylər) 퓔러르(萬年筆)
Blücher(獨blyçər) 블뤼혀르(人名)
maman(佛mamã) 마망(母)
monde(佛mɔ̃:d) 몽드(世界)

### 第二章 各論

大體로 朝鮮의 子音은 한글의 닷소리로, 母音은 홀소리로써 對照하여 적되, 必要에 따라 子音에 홀소리를 겸하여 쓰고 母音에 닷소리를 겸하여 써야할것과 또는 特殊方法으로 處理할것들을 本章에서 規定한다。

#### 第一節 子音에 關한것

原語의 各 子音을 本節에서는 便宜上 아래와 가치 大別하여 規定한다。

1. 摩擦音 f v θ ð s ʃ z ʒ ç x ɣ h ɦ 따위
2. 顫舌音 r R ɾ ʀ 따위
3. 舌側音 l ʎ ɫ 따위
4. 鼻音 m ɱ n ɲ ŋ N 따위
5. 破裂音 p b t d c ɟ k g q G 따위
6. 口蓋音 따위

第一項 母音과 어우르지 아니한 摩擦音과 顫舌音은 아래 그子音을 勿論하고 홀소리「ㅡ」를 부티어 적는다。例:

(一) 音節의 끗(子音의 뒤나 母音의 뒤를 勿論하고)
beef(英bi:f) 비프(牛肉)
stove(英stouv) 스토브(煖爐)
health(英helθ) 헬스(健康)
smooth(英smu:ð) 스무드(平滑)
dance(英da:ns) 단스(舞蹈)
rose(英rouz) 로즈(薔薇)
sports(英spo:ts) 스포츠(運動)
goods(英gudz) 구즈(物品)
Buch(獨bu:x) 부흐(書冊)
Bier(獨bi:r) 비르(麥酒)
katarrh(獨katar) 카타르(加答兒)

(二) 子音의 압(音節의 머리나 끗이나 中間을 勿論하고)
soft(英so:ft) 소프트(柔軟)
Stevenson(英sti:vnsn) 스티븐슨(人名)
thrice(英θrais) 드라이스(三度)
prism(英prizm) 프리즘(三稜鏡)
Okhotsk(露oukotsk) 오코츠크(海名)
goodstrain(英gudztrein) 구즈트레인(貨物列車)
Acht(獨axt) 아흐트(八)
Mark(獨mark) 마르크(馬克)
Bern(獨bɛrn) 베른(地名)
hormon(獨hormo:n) 호르몬(內分泌液)

第二項 母音과 어우르지 아니한 舌側音은 웃音節의 바침으로 적는다。例:

## 漢詩募集
遼東考選
題 綠陰
押 侵韻部
期限 六月十五日
(朝鮮日報學藝部)

## 二十世紀의 迷信(上)
小說家는이러케생각한다
蔡萬植

—來日의 人間『타입』을 쓰다。××의 부탁이엇다。

來日의 人間『타입』! 來日의 人間『타입』!

지금 이 重大한 오늘에 안저서 장차올 來日의 人間『타입』즉 明日型의 새로운 人間을 말해보란 뜻이렷다。

허어!

××도 그런걸보면 적잔히 딱한사람임을 알겟다。意識的으로 철을 모르려 드는게 그러나 詩人의 亦是 詩人다운 재롱스런 本能일른지도 모르지。或은 또 남을 되알지게 한바탕 떰을 내주고서、껄껄웃을 셈잡이 래해 하고시픈 아주 그런 猶悍한 사람스런 腹案일는지도 모르고。

그러치만……。

×

文學人이란건 흔히들 아름답고 어질고 참되고 한 그런人間乃至生活을 항상 明日에다가 理想하는 심이 글쿠남가 맹낭하달까 그래서 마치 墻下의 失한 信徒들을 내려다보며 死後의 天堂의 分讓을 시어시언 言質 두고잇는 說敎壇의 牧師님과도 비슷한 技術을(지실로 技術을!) 지녀야 하게크름 딸자가 마련이 되기는 된 모양스르다。

허고 일변 생각하면 미상 그도 자못 近理한날은 말인것이 가령 오늘은 어디루 갓든간에 來日날에 막상 그 아름답고 어질고 참되고 한、그런 人間乃至 生活이 現實的으로 우리에게 擴대해지지 말란 법은 업는것이매——

그러나 또 그러다그래서 唯獨 現實的으로 아름답고 어질고、참되고 한、톤틀어『美』그것이래야사단 반드시 文學的인『美』나 그追求의 對象이되냐하면 노상 그런것은 아니다。美術에잇서서도 마찬가진가 보지만 現實的인 醜는 文學에잇서서도 現實的인 美와더부러 버젓하게 하나의 價値를 藝術的인 美의資格을 갓는 것이다。

그리고 괴벽일는지는 몰라도 어찌보면 現實的인美에서보다 오히려 그現實的인醜에對하여 나는더만히 文學的인 美를 愛慾하는터이다 아마도『좀라』派의 自然主義들 先生해서 文學者배운 病弊이거나 또는現實的인 美에의『니힐』이거나、그것지。

아무런 그래서 來日의人間『타입』이란 이글題目을 가지고서도 여니 아름다운『타입』의 人間보다는 反對로 아름답지안흔 즉醜한『타입』의 人間을 그리하되 人間性을 抹殺치안한人間을 明日에다가 摘發하는데에(理想하는데에) 나는 興味가 쏠리기쉽고 어찌할수업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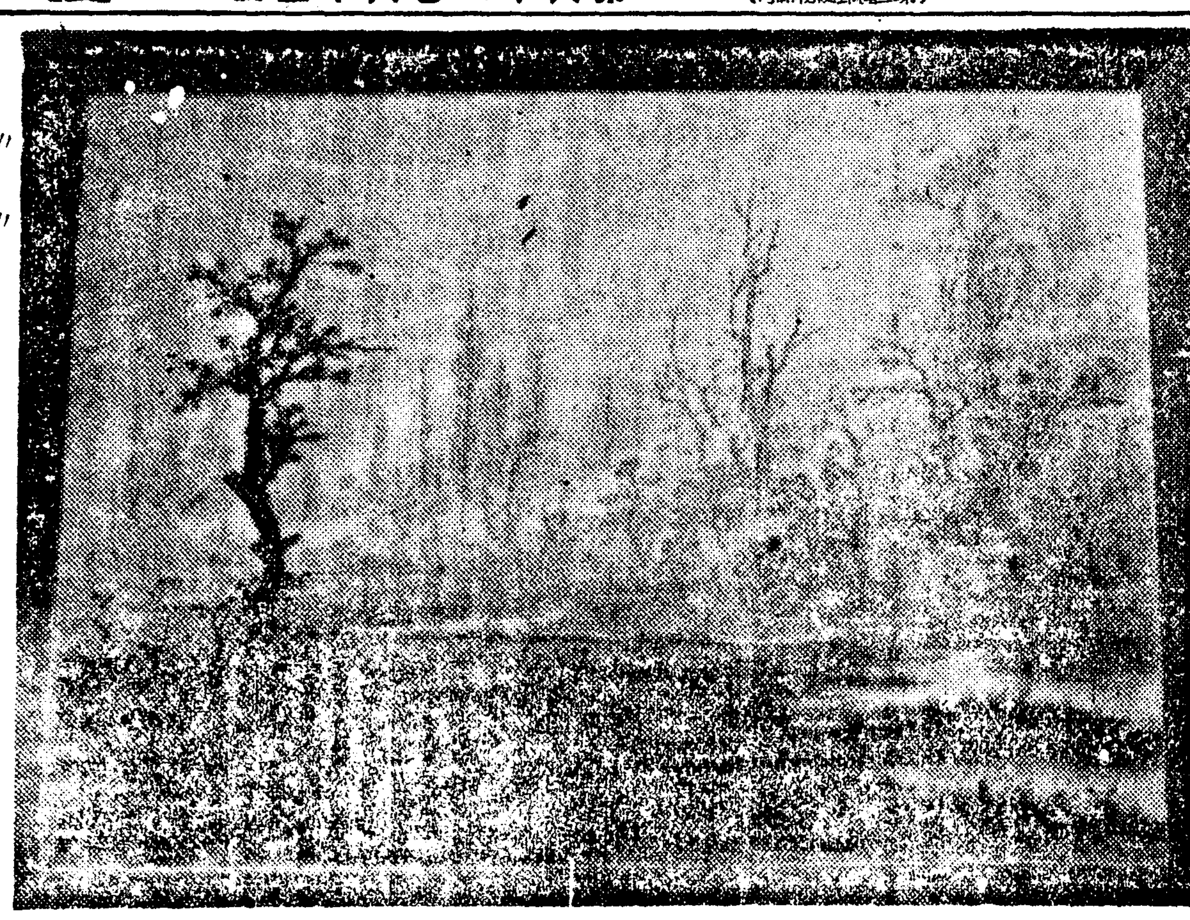
××얼굴이 빼어해서작히 뒤둘수도 손이올라가겟지。

×

오늘을 갈르처『事實의時代』라고 들 부른다。좀 漠然스런 말이라 아님수어엽다。그러나 名稱을 若干變更하지못한거야 그리 상관이 아니고 정작은 그토이데오롤를 그렇듯『事實의時代』라고 부르는 背後에는 이오늘이라는 時代를 갓다가 그리 歷史的으로든지 社會的으로든지 精神的으로든 代이를 意味하는 意味가 어엿이 잠정하고잇스니말이다。

眞히 日이한 觀察이 아닐수가 업고 二十世紀 第四十年代의『迷信』은 진실로그 오늘을 時代가 無限期 無秩序하게 行하는 들로 觀察하는데서 出發을 하는것이다。

『갈릴레오』의 不肖한 弟子들이 따주어집을 차자가서 太陽의 無窮을 구러하며 이러듯 밤과 어두움 前後삼어 오직 不合理를 칭食하고 迷信하고 하는게오늘의(오늘밤의) 人間『타입』인것이다。



「아침」……(第十九回朝鮮美展) 李象範

## ★女流隨筆★★★ 庭園(中)
李善熙

西門마르러기 附近에서 나는 한奇異한 집을 發見햇다。자그마한 西洋館의 外國人의 집인듯 시픈데 언제보아도 大門은 열려잇으나 사람의 기척은 업시 몰흠이 꼭꼭다친채조용하다。

이집은 모도가 灰色이여서 베모신 二層建物도 灰色이고 庭園으로 돌려가며 선 울친 야트막한 벽돌담도 灰色이고 빽기정한 조고만 大門도 灰色이다。

그리고는 지금 한창 茂盛한 잔디며 꼽게 드러노흔 나무들이며 뿌흘 무겁게 옷입힌 담장이 넝쿨들이며는 草綠色이 그냥지러잇다。

『이집은 비엿다。여기서 내가 살엇스면조켓구먼』

나는 이런생각을하며 남의집을 有意하게 이모저모 뜨더본다。저『커텐』친 房으로 빼꼼게고 그뒤로 厨房이잇고 여기서 나는 珈琲를끌리고 二層은 寢室이고 그리고『팔라』엔 꼿紋이노흔椅子들을노코——

이집庭園은 자그마하나 大門에서부터 玄關으로 드러가는 S字조그만길을 내노코는 全部 나무와 花草가 或은 접씨와가지 동글게 或은 게란과가지 隋圓形지게 잔디와서 거섬거저잇다。

그중에도 이五月의女王인 薔薇가 香水를 담뿍안고 꼿방석을 고잇는 그화려한 품이 나는『트리스탄』과『이솔데』가 마시는『사랑과 죽엄의 媚藥』으로 향경서 꼿의 精으로 비젓을것이라고 생각햇다。

그리고 그밥똑까지 덥고는 草綠의잔디 밧식『한여름밤의꿈』의 모든場面이 이 동산에서 이루어질것을 것고 끔끔끔한 수연가들으로 기여히 퇴리고 풀이스기 어드든 담쟁이넝쿨들도 한연시 사랑스럽다。

생각해보니 남가치 가난한女人은 五月이기고 또 六月이와도 어디에『아카시야』꼿한송이 볼수업고 하다못해 장독대아레 花盆한그노치못하는 憫地야말로 언제 五月이 쓸거우니 六月이 잇을 事件이 업는것이다。하고말할 條件까지 차자 업는것이다。그러한데、이러한집에서 살기에 남보담 더 適當한者가 누구일거시냐。저灰色의 네모난집 들기둥으로바친『아ー치』形의玄關 저茂盛한 初夏의庭園—그보담 더욱거운것이 光榮이비 저無緖 누가잇스리엇。줄것이다。

『어떤者가사는지 쯔처버리고 남가는사람이 살어야 올흔일이다』 나는 이와가치 悲氣스런 생각을하면서 혼자서 苦笑햇다。그리고 이 저버린舍엇것은 어떤한가지 事件이 다시 記憶된다。

前에내가 女學校를 마치고 故鄕에 돌아와서 E學校에 入學하여 처음으로 서울에 잇을때다。

나를가르키든 校長先生이 그때 우리집에 잇던 관계로 寄宿舍를 왓는데 나동안에는 一週에한번씩 와서 寄宿舍를 하는것이다。나는 어느날 寄宿舍를 나서 리先生이 게신데를 차저가게 됏다。

그런데 내가 이 西洋人 집에 드러서자 사람들이 둘러서서 잡혀 떠든다。그속에는 十三四歲나는 少年이 때문은 ... 꿈에 피가 흐르는것이 보인다。

그리고 그속에서 나이四十가량되는 한 부인네가 맨발에 멀멍으로된압치마를 입은채 무에라고 떠들며 울며 四肢를 펴스다 오그렷다 그냥울며뒤는것이다 바로저少年의 어미고 이곳의下人이다 그겨테 運動服을입은 西洋人男子가 손에쇠갈구리를 단단히 잡고서서 緊張해잇다。

잠시 事情을드르면 門참외바테서 저괴루성이된少年이참외한개를 따다가 들켜서 그西洋人牧師가 손에쥔 쇠갈구리로 갈겨서 저지경이 되게까지 된것이다。

이 鄕村에는 五色이燦爛한 別世界가 숲속에 數업시 숨어잇고 조개껍질이 반짝이는 모새땅길여면『테니쓰』코―트와 公會堂이 잇고 뒤에는 紺푸른바다가 波濤를안고둥둥떠들어와 부서지는아름다운땅이다。

나는少年앞으로 한거름다 어서면서 이내울엇다。나비같고 公主같기도한 西洋사람들은 와하고 내게로 몰려왓다。그리고醫生도 마저 서우는나고 내등과머리를어루만지며 慰勞를잣는다。그리고南米에서 黑奴를다르던 솜씨인지 꼿꾼치를재고는놀 달래서 자기집으로 가자고 내팔을끌다。

나는모도다 실혀다。어서 市內에들어가 얼마지처서 ... 이러한 洋人들이 ... 人의 子息을 ... 고지켯다。어떠하나 ... 미인형 ... 남아 울면서 ... 하고 ... 고 밥먹는 下人이 울며 ... 눈에 비치엇기때문에。

×

나는 이아해를 ... 라고 혼자 ... 어떠케 ... 問題 ... 不仁 ... 다。

## 孫子講義
李昇圭

用間篇(一)

孫子—曰 凡興師十萬하고 出兵千里에 百姓之費와 公家之奉이 日費千金하야 內外騷動하고 怠於道路하야 不得操事者— 七十萬家니라

【註】曹公이曰古者에 八家가一隣이되니 一家가從軍하면 七家가奉供하나니 十萬의軍이면 操事를 못하는者가 七十萬家니라

【通解】孫子—갈오대 무릇軍士十萬을 일르키고 軍士를千里에 내매 百姓의消費와 公家의供奉이 날로千金을 消費하야內外가騷動하고 道路에게을러서 시러금일을 잡지못하는者—七十萬家니라

相守數年하야 以爭一日之勝이어늘 而愛爵祿百金하여 不知敵之情者는 不仁之至也니라

【註】李筌이曰爵과賞을 아껴서 間諜을 쓰지아니하여 敵의動靜을 알지못하는者는 不仁하기 至極한者니라

【通解】서로 지키기를 數年동안이나하여 써 一日의勝利를 다투거늘 爵祿과百金을 아껴서 間諜을 써지아니하여 敵의情을 알지못하는者는 仁치못함이 至極하니라。

非人之將也오 非主之佐也오 非勝之主也라

【註】間諜을 쓰지아니하면 人의將도아니오 主의佐도아니오 勝의主도아니니라

【通解】人의將도아니오 主의補佐도아니오 勝利의主도 아니니라

故로 明君賢將이 所以動而勝人하야 成功이 出於衆者는 先知也니라

【註】敵의情을 먼저알면 勝利를 하나니라

【通解】故로 明君과賢將이 써動하면 人을 이기고 功이衆에서 出하는者는 먼저아는 까닭이니라

先知者는 不可取於鬼神이오 不可象於事오 不可驗於度오 必取於人하야 知敵之情者也

【註】... 

【通解】먼저아는者는 可히鬼神에取하지못하고 可히事에象하지못하고 可히度에驗하지못하고 반드시사람에게取하여 敵의情을 아는者니라

## 키뭇치
### 一千마일
까소린·파이프

補給에『파이프·라인』을 使用한다는 新戰術을 쓰고잇다고하는데 歐洲의 大規模 機械化戰에는 米國의 石油輸送에 도『스피―드·업』을 要求하여『듀―저시―』州의『시엘·유니언』과『스탄다―드』石油會社는 西南部 石油産地로부터『노―폭―크』間에 約一千『마일』의石油輸送『파이프』를 建設할 計畫을 세우고잇다 그工費는總額一千五百萬弗이라는 놀라운 것이다。從來方面의 石油는 海上을 油槽船으로 運搬하고잇섯는데 이것이 最近不足해오다는것과 歐洲方面에의輸送을 될수잇는대로 빨리한다는것이 이計劃이 나온 動機라 한다。

## 新刊紹介

◆活泉 六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 定價十五錢
◆農業朝鮮 六月號 發行所 京城府 ... 定價二十錢
◆商業朝鮮 六月號 發行所 京城府城北町一一 大同出版社 ... 十錢 送料一錢
◆商工朝鮮 六月號 發行所 京城府 ... 一〇二九番 定價 ...
◆食糧經濟 六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丸之內海上ビル 日本米穀協會事務所 振替東京二〇四二九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麗水 ... 五月號 發行所 朝鮮 ... 定價三十錢 送料三錢
◆ ... 六月號 京城府 ...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〇番

## 第十九回 朝鮮美展評
東洋畫部…(上)…
金靑岡

個人的作品의 感想을쓰기前에 먼저 東洋畫部全體를 一覽한 印象을 적어보겟다。

美展도 回數를거듭하기十九回 사람으로치면 靑年의時代를 지나 元氣活潑한 壯年時代로 들어가는 時代로 그러나 東洋畫部 作品을말하면 果然그러한程度에잇다고 할수잇슬까?

近數年來의 美展東洋畫部를말하면 在來의 그림式 即『만네리즘』이라고할까 거기에 잠겨잇다가 日本畫風이 一方으로 濁水가치 몰려드러 어느듯 美展의東洋畫는 內地畫壇의 一延長機關이된感이 업지안타 그럼으로 今年作品中에는 內地畫壇의 畫風을 따라서『만네리즘』의 舊態를버린 現代에 適合한 時代的인 畫風의作品이 만흠을보것나 個中에는 展覽會의空氣만을 맛추기爲하여個性을일흔 作品이 잇는것은 매우遺憾이다。

今年東洋畫部는 數로보아 八十二點이면 例年에比하여 좀만흔便임으로 余體的으로 好評할수는업스나 個人的으로는 새로 優秀한技巧를 가진二三作家가 進出하고 또 例年에 出品하던作家中에도 今年에는 確實히 別開의 새로 進境잇는 作品을 낸이가 散見에띠인다。

그反面에 아조幼稚하고 程度未及한作品도 업지안허 東洋畫余體의『레벨』의 差가 적지안타 그럼으로 一般으로서 한가지알어둘것은 가는入選作品中에도 程度가다른 여러層의作品이 한入選이란 面을쓰고잇는것 잇서는안된다。

그밖고 今年에 例年보다 달는것은 初入選의作家中 女流作家群이 새로進出한것은 반가운일이며 또한 特選作品의內容을보면 人物이四人이오 花鳥가二人으로 山水風景은 一點도特選이업는것은 山水專門家에게 북그러운 일이다。

今年獨特한現象으로는 먼저도달하여지만 文展(文部省美展)等 中央畫壇에 入選한 旣成作家數三人이 새로 出品하여 조흔成績을올리고 잇는데 이것은 個人的이나마 美展의『레벨』을올리는同時에 朝鮮作家의研究熱을 多少鼓吹 或은刺戟하는 한條件이 될지모르겟스나 何如間 美展을爲하여 조흔 일이라하겟다。

陳列에對한意見을 暫間말하면 西洋畫部도 그러치만 作品과作品새를 너무바르陳列하여노아 東洋畫部를보고 西洋畫部로가면 이미 錯覺紛亂하여 疲勞를느낀다는것이 一般觀覽人의말이다 團所關係인지는모르겟스나 좀더餘裕잇게 陳列하여 悠悠하게 볼수잇스면한다。

陳列된 作品의內容으로말하면 第一室、第二室에 比較的의 一東洋畫中에서 佳作을 모아陳列한모양이다。何如間 今年美展東洋畫部는 例年에比하야 別向上이업다고 보겟다。

明年는 二十回紀念展도되겟고 참으로 一層조흔 展覽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第一室로부터 次第로作品을다 말할수는업고 그中에서 印象에남은것만을 적어가겟다。

×

**鄭末朝氏『追還』**(特選)

陳列中에서 拔群한『텍닉』中心의作品으로 今年美展東洋畫部 佳作中의 하나이다『텍닉』을 도모지 질취하지아니하고도 主觀의人物을 살린것이 눈에띈다 이분은欠點이도 一回나 入選한努力家로 우리畫壇을 위하야만 活動이 잇기를 바란다。

**金基昶氏『麗日』**(特選)

今年에는 花鳥를 出品하엿는데 努力한作品이다 그러나 去年再昨年에 出品한人物보다는 못하다고보겟다 亦 氏는 人物畫가 擅長이라고 하겟다

**李鎬碩氏『葉亭』**

今年作品은 確實히進境을보이고잇다 色彩의箇積法도한例年보다 重箇法을 使用하여 그림의무게를 잘表現하엿다。

**李建英氏『古城一隅』『春郊』**

二點다 新描法으로 새로운氣分을주는作品이다 二點이各各 다른作致를 보인것이조타 나는 그中에서『春郊』를 取하겟다。

## 修養
### 合理的心身鍛鍊法(三)
陸軍中將 秦眞次

心身一致의 敎練式의 一例를 보면 아래와가다。

1、 氣合、敬禮、集合解散

生徒를 一列橫隊로하고 于先番號를 부처 그時間을 秒時計로 본다。이時間은 普通十五人쯤의 三秒、入秒를 要하나 心身을緊張시켜서 誠實하게練習하면大三秒乃至五秒쯤으로된다 한사람이 엽사람의 號令을듣고 마음에생각하고 다음에 이것을입에올리기까지의 時間이Q、五秒로부터 차츰 二秒短縮된것이다。

敬禮도 右와同一한要領으로서 先의머리를正面으로도 하든것을눈으로보고 마음에생각하고 다음에 이것을自己의 머리속에나타내기까지의時間이『마지멘』하게만 되면 Q、五秒로부터 차츰 二秒로 短縮되는것을 敎理的으로 實證할수가잇다。集合解散은 좀어려우나 이것도Q、三秒쯤으로 된다。

右의實例도『마지멘』하게만되면心身의사이가Q、五秒로부터Q二秒까지의 Q、三秒만치사이가 조여지는것이된다。即『마지멘』는『마지멘』의 結果로生한다는것이 이로써 數理的으로立證된다。實際도『마지멘』해지지 안흐면 右와가튼『마지멘』의結果는 어들수 업다。

2、不動의姿勢

于先形式(身體의사이를조이고)과 氣分(마음의사이를 조이고)이 되며는『명출』하고불러서『예』하고 對答하면서 同時에 心身一致의 不動의 姿勢를取하게하고『예』하고、입으로 對答하는刹那와 발끝치 손 머리 눈이 바르게 位置를取하는 刹那와 이두刹那가 一致하는 與否를 檢察하고 一致하지안는자는 발끝치의 한다든지 엄지가아직 대답하지안엇다 한다든지『눈알의 대답이 기운이업다』하든지 指示해서『마지멘』의 妙味를 깨닷게 하기에 힘쓴다。

3、速步行進

이것도 于先形式과 氣分이大略된다음에『勇往』하고 一步一步『邁進』하고 一步一步 活潑하게 躍動시켜서 그氣勢가 다만 입끄테 나타날뿐 아니라 눈에도 손에도 다리에도 발끄테도 全身各部에 나타난與否를 檢察할것이다。

### 三、敎練과修養

敎練은 心身鍛鍊의 見地에서보면 宗敎以上의 最大修養法이다。宗敎에 依한修養은 자칫하면 精神修養에 偏하는嫌이잇스나 敎練은 精神과身體와를 同時에 修養시키는것이므로 心身鍛鍊이라는見地에서보면 宗敎에依한마음의 鍛鍊보다도 나은것이라고 말할밧게업다 以下에다시 宗敎와比較하여 좀詳細하게 이것을 說明해보자。

宗敎도安心立命을 어도려고하는것은 現代人에게는 꽤어렵게되어잇다特히科學萬能者中에는 宗敎를 阿片이라고 確信하고 이것을破壞하려는 사람조차잇다。佛敎만해도 小乘의 地獄極樂說이며 다만 南無阿彌陀佛이라고 부르기만하면 조라는것으로는相當한 科學知識을가진 現代人은 안코 몸으로써 이를行하게하는 修養에 信賴하고 安心立命할수가업다 그러다고大乘佛敎와가치 어려운原理에 徹底하는것도 每日每日의 바쁜職業에 從事하면서 눈이도라가도록 變해가는『스피―드』時代의 生活者에게는 얼른그런 餘裕가업다 그러나人間에게 煩悶 不平 不安 神經衰弱等이잇는限 이러한一切의 不安업는安心立命을 바라지안는사람은업스리라 安心立命不要라는 安心立命을어든사람이나 어려운宗敎가 잘了解되어서 이미安心立命하고 잇는사람은 그것도조타。

그래서宗敎와가는 어려운理論이아니고 가장平易하여 들어가기쉽고 또大衆的인合理的安心立命法으로서 敎練의門으로부터나가는 方法을말한다前에도자주말한것처럼 敎練은사람을 마지메하게한다 敎練은 사람의 마음을 조이고 身體의틈을 조이고 다시 心身의사이를조인다 即마음에생각하던일을 때를 옴극이 수잇는바로 또事實에 잇서서도 敎練의誠實한 練習에 依하여그 始作에는 마음에생각한일을 身體에 나타내기까지의 時間이假令一秒를 要한것도 漸次Q、五秒—Q、二秒이러케 時間이 短少되여서 드디어거진 零에가까워지는 刹那의 心身一致라는 곳까지 사이를 조일수잇는것은 이미말한것가튼 事實이다 이것이即心身一致 知行合一 即身卽佛이다 마음에생각한일이 곳行해지게 되고 다시이것을 徹底히하면自然그反動作用으로 行하지못할일은 마음에 생각지안는다는 作用을 가저온다 假令心中에 一旦일어난思想이라도 그일이 行할수업는일이면 敎練에서 말한것과가치처음은 一秒에서Q、五秒—Q、二秒로 漸次短少時間內에 그思想을 지워버려서 드디어는全然 마음에 생각지안케될것이다 이것을 暫時『Q、二秒의心氣轉換法』이라 命名해둔다。

以上은 論理的으로도 또事實에 잇서서도 論斷할수잇는바로 그域에 達할수잇는것이다 생각해서 아무價値업는일이 『이네르기』를 消費하는일의愚를 알면 그愚를 끄치면된다 知行合一로 그愚를 알과同時에 이것을知行合一 心身一致 사이를소일줄아는사람이면 되어야할일이다。

그래서 사람이 行할수업는일은 생각지안는다는域에達하나저어도 조금만 마음에생각하면 그實行不可能한일사 곳『Q、二秒의心氣轉換法』으로 생각을돌릴수잇스면 不平、煩悶、後悔、執着等이업서지고 부질업는일에 머리를 쓸것도업고 마음平平하게 安心하고 愉快한生活을 보내게된다。

사람은 조금놀라도 顔色이파래지고 조금만 부끄럽다고생각하면 생각만해도 顔色이빨개진다。이것을생각하여 말하는것이 血液循環에 影響하는證據다 그런데 無益한일을 생각지안케되면 不絕히 血液循環이 바르되어 생각하는일 과 行하는일이 一致에徹底하면『마음에업는』『行한다던지』『마음으로는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行하다던지』『마음으로 行하고십다고 생각하면서 行하지안는다던지』『行하지도안는일 또 行할수업는일을 생각한다던지』하는 一切의矛盾이 모수리업서저야하다 이러케 徹底해서 矛盾업는擾亂을『心身一致의쯤』『라고한다』이것은宗敎처럼 마음뿐인 價値가아니고 몸으로써 價値하고는다른 다 이價値가열리면 安心立命은 곳된다。

右와가튼 心身一致의 價値를 열메當하여 心身을따로 게다가 重要性을 다른것으로 取扱하는 以上 어떠케接近해도 左圖(略)甲乙과가치 반드시 未分의 境에 達할수업서 心身의完全한一致는 不能해짐은 當然한일이다。

# 米國國民經濟事情 ③
## 東南洋의重要性
### 米國經濟의矛盾深刻

**米國貿易과東洋**

最近의 米國輸出貿易狀況을 地域別及地域別로보면 如左하며 米國貿易輸出市場으로서 第一位를 占하고잇는것은 歐洲이다 이에다음가는것은 다른米洲 中南米諸國市場이며 이地域은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米國의 勢力範圍이지만 消費地方으로서는 [illegible]

의購買力은 그다지 많지못하다. 現政府에서 熱心이하고잇는 互惠通商政策遂行의 結果는 如意치아니한 點이 많다. 中南米諸國의 購買力이 貧弱하므로 結局은 이에 限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米國과 中南米諸國間에 互惠通商協定을 締結하고 相當한 利益을 얻고 있는데 其成果가 期待되는 것이다.

(備考 本表의數字는 再輸出을包含치안음)

**米國輸出貿易商品別構成表**

| 種別 | 價額(百萬弗) 一九三七年 | 一九三八年 | 一九三九年 | 總額에對한比% 一九三七年 | 一九三八年 | 一九三九年 |
|---|---|---|---|---|---|---|
| 總額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100 | 100 | 100 |
| 農産物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非農産物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原料品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原料食料品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製造食料品及飮料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半成品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完成品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米國輸出貿易地域別構成表**

| 地域別 | 價額(百萬弗) 一九三七年 | 一九三八年 | 一九三九年 | 總額에對한比% |
|---|---|---|---|---|
| 總額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歐洲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北米洲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南米洲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亞細亞洲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日本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大洋洲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阿弗利加洲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北米市場이라고하는것은 結局加奈陀市場을말하는것이며 米國의 特別關係에對해서는 別問題로하고 第一의市場인 歐洲도 戰爭에는 從前과같지않게 輸入하고잇지는아니하다. 今般戰爭으로 物資가 一層많이 需用될것이라고 할지모르나 第一次歐洲戰爭當時와같은 期待는 到底히 가질수없다. 現在英佛과 같은 곳에서는 戰時經濟의統制政策으로서 (一)國內産業의 開發擴張에依한 生産의增大 (二)同盟及屬國에서의 輸入 (三)中立國으로부터의 輸入增加 (四)信用上有利한 諸國으로부터의 輸入等의 根本原則을 樹立하였고 佛國亦是 英佛共同購入協定에基하여 이에追從하고잇스므로 米國의對歐貿易은 期待할만큼되지못한다. 또今年에入하여 米國의 對歐貿易은 매우 增大되는 傾向에잇지만 歐洲는目下 生産하지안코 消費만하고잇스므로 그購買力에는 限度가잇다. 이에對하여 無理로 賣出하려면 그結果는 前의大戰後와同一한 影響을 受하여야할것이다.

結局그때에도 代償을 받을 歐洲市場은 世界貿易의 決濟에 이라고보고잇다 米國이 米國의地位는 南洋市場의 重要性이라고하지만 이러한 將來性이잇는것을 看過할 수 없다. 그米國을 輸入하는 東南洋市場으로서의 多大한 將來性이잇는 市場에 依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現在米國의 東, 南洋輸出貿易을 內容的으로보면 大略以下와같은 狀況에잇다. 卽 米國은 輸出原油의 三〇%以上, 精油의 四〇%, 棉花, 煙草等은 各其 十%乃至三八%, 또 鐵鋼半製品은 四〇% 工作機械類에對해서도 二〇%以上을 賣出하고 잇스므로 이市場에서 逐斥을 當할수잇다.

가令하면 米國에 있어서 그는 否認할수없는 致命的인 것이다.

**物資洪水의苦惱**

要컨대 米國現在의 國民經濟는 其機構의 性質及規模로 世界市場과의 關聯에 依하여 그 産業資本主義國家로서 市場을 求하는 것이다. 米國内需의 特質이 그 過剩生産을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illegible]

其他國民經濟의 制御權이 少數資本家의 手中에 있는 것이다.

# 小運送合同問題
## 鐵道局方針是正要望
### 京城卸商聯總會決議로陳情

京城卸商聯盟에서는 十二日의 總會에서 如左히 小運送合同緩和策을 決定하고 十三日宮林會長以下 各幹部가 總督府當局을 訪問하고 鐵道局의方針是正을 陳情要望하엿다 그陳情要旨는 如左하다

一、十四年度決算報告
一、十四年度事業報告
一、十五年度豫算報告
一、十五年度事業計畫
一、役員改選
一、小運送合同緩和策

한편國策이아닌것으로 貨物運送의 不便을 招來하고 또低物價政策에 背馳하는것이며 目下進行途上에 잇는 小運送業者合同促進問題에對하여 荷主로서 詳細히 그內容을 聽取하고 있는 바 對한 十二日午後三時半부터 京城호텔에서 京城卸商聯總會를 開催하고 硏究한 後 鐵道當局에 陳情하기로 決定하엿다

**京城卸商聯總會**

京城卸商聯盟에서는 十二日午後三時半부터 京城호텔에서 總會를 開催하고 如左히 決定하엿는데 役員은 宮林會長以下 全部留任되엿다

# 小運送業營業屆
## 十四日까지提出치안흐면 十五日부터는營業權喪失

小運送業令이 一月十五日에實施된以來 五個月이되는 六月十四日은 營業屆를 提出한 最終日이다 萬一 이十四日까지에 營業屆를 提出치안흐면 十五日부터는 營業權을 放棄한것과가튼 結果를 招來하게된다

六月十四日까지 屆出해주면 六月十五日以後는 從前의 營業을 繼續할수업게된다 合同에 參加한다든가 或은朝運에 賣却한다든가 하여 右屆出에 依하여 免許權의 有效期間을 指定케되다

十五日부터는 現下取引의 實情에 卽한 適正價格을 決定하는데 있어서도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될것으로 當局은 이에對한 態度가注目된다

# 雜穀增産과 各道의意見

農林局에서는 明年度부터 雜穀의增産强化할方針을 決定하고 增産計畫에對하여 各道의意見을 照會中이더바 右에對한各道의意見이 요즈음모이엇는데 그에依하면 增産計畫樹立에際해서 左記諸事項을 考慮하여달라는 意見이 提出되엇다

一、雜穀의增産은 時局下緊要하다하나 增産計畫을强行치말것
一、各種別增産目標만을 示하고 面積에拘泥치말것
一、技術陣을充實하고 品種耕種法의改善策을 今後의方針으로할것
一、外延的擴張보다도 集約度를 高히할것

# 麥의集配統制
### 集荷는殖産契·配給은配組
## 民間側에서異議提唱

現下의 食糧事情에 對應하여 內地에서는 麥의 集配統制를 强化할것으로 보여 政府에서는 大局的으로 朝鮮으로서도 이에 準하는 方針을 取하게되었는데 그 重要性에 鑑하여 强硬管理的 集荷配給의 新體制를 確立하는 것을 朝鮮으로서도 決定하고 集荷는 殖産契, 配給은 配組에서 行하기로 되었으나 이에 對해서는 民間側에서 異議가 提唱되어 各方面의 注目을 끌고 있다 卽 新麥配給機構는 그重要性에鑑하여 政府에서는 大局的 見地에서 朝鮮으로서도 內地와 같은 新機構를 確立한다는 것인데 新年度의方針을 明日이라도 發表하게 되었다 그러나 朝鮮에서도 集荷는 殖産契와 組合이 주로하게되고 配給은 各道配給組合이 行하게될 것인바 이 統制方策에 對해서는 民間側에서 集荷配給에 關한 經營이 困難하다는 意見이 있어 結局內地에 順應한 配給 定價格 設定問題에도 關하므로 그 推移가 注目된다

# 電力資本大轉換
## 東邦電力朝鮮進出

內地의 電力統制結果 各電力會社의 他産業部門에의 轉換進出이 注目되는데 東邦電力이그 轉換의方向을朝鮮으로 向코자하고 있어 資源의 調査와 工業條件의 檢討를 行하고 있어서 同社에서이미 그第一着手로서 朝鮮內의 産金事業에손을대고 東邦産金會社(資本金一千萬圓)를 設立하여 江原道와 咸鏡南道에 在한 所在의 金山을 經營하고 또한 朝鮮에 잇서서 各種地下資源의 開發을 하고 있으며 其他 産業方面에도 進出하고 있다

# 船腹擴充國策會社
### 帝國船舶會社近日創立

【東京電話同盟】近海重要物資의 輸送을 確保키爲하여 遞信省의 船腹擴充의 國策會社로서 設立計畫中인 帝國船舶株式會社는 諸準備를 終了하엿스므로 近日 創立總會를 開催키로되엇다 同社는 資本金一千萬圓(二分一拂込)으로서 目下役員을人選中인데 社長에는 國際汽船社長 [illegible] 有力視된다

# 政府保障興債
## 六千五百萬圓發行

【東京電話同盟】興銀에서는 十五日 政府保障興業債券 一千五百萬圓(元號)을 發行하고 이어서 二十五日拂込로 可號 五千五百萬圓의 發行條件을 如左히 決定하엿다

# 朝鮮內農機具 配給統制斷行

資材의獲得難, 配定減少, 偏在 等으로 朝鮮內의農機具의 需給關係는 窮塞傾向을 加하고잇스므로 農林局에서는 右事態를 改善코저 朝鮮內의 配給統制를 斷行하기로 方針을 決定하고 目下具體的硏究를 하고잇다 朝鮮에잇서서의 農具의 統制는 內地에서 移入하기까지의 過程은 統制가 確立되엇스나 移入된農具에對하여는 業者의 自由任意에 委任하고잇스므로 그結果 其는 顯著히 偏在하여 그 配給에 一層不圓滑하게 되어잇서 此에鑑하여 朝鮮內配給에 對해서도 統制를 加하여 直接統制를 確立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右統制方法은 미리 移入決定量을 定하고 各道에 配定하여 制가 確立되면 現下의 農具需給關係는 顯著히 改善될것으로 期待된다

# 無煙炭積出設備

朝鮮無煙炭에서는 元山港埠頭에 無煙炭積出設備를 實施할 計畫으로 同社長 鈴木氏는 目下元山에 出張하여 同地埠頭施設改善에 對하여 關係者와 折衝中이다

# 日本肥料委員會

【東京電話同盟】日本肥料株式會社 第一回設立委員會는 十二日午前十時부터 農林大臣官邸에서 開催하고 十七名의 特別委員을 選定하여 委員長에 酒井忠正伯을 推하고 特別委員會를 開催, 定款事業目錄書 收支計算書 株式配定基準等을 審議하였는데 右는 모두 次回十四日의 設立委員總會에서 正式決定할 豫定이다

# 十五年度物動案
## 計畫概要十四日閣議에附議
### 細目은企畫院서檢討

【東京電話同盟】十五年度物動計畫概要(暫定案)는 企畫院總裁가 參與하여 竹內總裁가 首相官邸에 十三日午前十時부터 首相官邸에서 米內首相 畑 陸相 吉田海相 星野企畫院總裁 等 竹內總務長官의 참석으로 十四日의 定例閣議에서 附議할 豫定이다 本案의 內容에 對하여는 細目을 除한 概要를 決定하고 細目에 對해서는 다시 企畫院에서 檢討하기로 되엇다

# 豊富한資源에 一驚
## 一千萬圓으로金銀開發
### 松永東邦電力社長談

東邦電力社長 松永安左衛門氏一行七名은 平壤, 新義州, 安東, 大東港, 多獅島, 鎭南浦等各地를 視察한後 十三日午前八時五十分 京城驛着入京, 朝鮮호텔에入하엿는데 同日正午 總督府其他關係當局을 訪問하여 인사하고 十四日 京仁地方을 視察하고 同夜 京城을 떠나 江原道의 同社事業地와 興南 淸津 羅津을 視察한後 日本海航路에依하여 新潟經由歸東할 豫定인데 松永社長은 視察의 感想과 計畫을 如左히 말하엿다

西朝鮮地方을 相當히 詳細하게 視察하엿는데 目的은 鴨綠江水電의 完成에 依한 電力의 豫想消化狀態, 資源狀態 等 工業的能力이라는 것을 觀察하려고 온 것인데 資源이 만타는 것을 보고 놀랐다

調査에 基하여 計畫을 세우고자 한다 特히 京義線과 大同江流域의 鑛資源은 相當히 豊富하다 其他 닉켈, 뻐나듐等의 特殊鑛物도 朝鮮內에는 잇는듯하다 石炭을 行하고잇는데 이것을 工業化하여 加里를 適하고도 남을 것이다 江原道, 咸南에서 目下 알미늄을 製鍊할 計畫을 세우고 잇다 아직 特殊鑛物을 爲해서 鑛業을 確定하지 못하엿지만 現在는 東邦電力의 手中에 잇다

業用地를 買收하고잇스며 또 同社 經營의 東邦産業(旣設 鎭南浦)에서 朝鮮의 資源을 가지고 大々的 鑛工業에 進出할 計畫이다 東邦電力의 朝鮮進出은 東邦電力의 電力部門으로서의 轉換이 크게 注目된다

# 十五年度朝鮮內 無盡合併進捗

中央無盡에서는 全北無盡의 合倂에 이어서 折衝中이던 平南無盡과의 合倂問題가 進捗되어 近間兩社代表間에 契約을 調印케되엇다 比率은 平南無盡은 資本金五十萬圓이다 慶南釜山無盡慶北無盡과의 合倂도 順調히 進捗되고 잇다

朝鮮內 手形交換高는 三十二萬三千二百十六枚 四億七百萬九千六百六圓으로 前月中에 比해서 二萬七千六百七枚 一千七百二十八萬九千八百五十一圓, 前年同期에 比하여 一萬三千五十三枚 一億二千三百五十三萬五千二百五十八圓의 各其 增加이엇다

# 手形交換增加

京城手形交換所調査 五月中의 手形交換高는 [illegible]

# 鮮銀券發行高週報

一、銀行券發行平均高(自六月一日 至六月八日)
四一九、五一四、四〇七
內制限外發行高
一九、五六九、五二五
正貨準備發行平均高
三三九、九四四、八八二
保證準備發行平均高
一七九、五六九、五二五
二、週末銀行券發行高
四二〇、一二八、六一五

▲久保田農林局長(鹿島組) 十三日飛行機로赴任

# 葉煙草需給
## 第二國向輸出調整
### 煙草事務協議會開催

大藏省專賣局에서는 六月十八日早日 同月二十一日의 四日間에 亘하여 內外地及滿洲國을 通한 葉煙草의需給을 調整하기 爲하여 煙草事務協議會를 開催할 터인데 朝鮮에서도 參加한다

一、最近의 葉煙草生産實施狀況
二、昭和十四年度以降同十七年度에至하는 葉煙草需給狀況及將來計畫
三、日(內外地)滿支相互間의 葉煙草融通移出入의 狀況과 將來의 可能性
四、葉煙草輸出入(國際取引)의 現況과 將來의 可能性
五、葉煙草品質의 改善上實施하고 又는 將來實施를 必要로하는 方策

# 鐵鋼値上問題
## 意見의相違點

【東京電話同盟】鐵鋼値上問題에 對한 商工省과 陸軍側과의 根本的意見의 相違點은 如左하다

一、鐵鋼價格上의 生産者側의 主張은 自由競爭市場이 될 것을 爲함이다 [illegible]

# 貯蓄組合九萬千
## 四百十四萬三千人
## 一億五千五百萬圓

財務局調查에依하면 三月末의 朝鮮內 貯蓄組合數는 九萬一千三十組, 組合員數는 四百十四萬三千七百四十六人으로 朝鮮內人口의 一割八分一厘를 占하고 組合의 普及率은 漸次高하여 貯蓄現在額은 一億五千五百十一圓에 達하였다 道別內容은 如左하다

| 道名 | 組合數 | 組合員數 | 貯蓄現在額 |
|---|---|---|---|
| 京畿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忠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忠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全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全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慶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慶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黃海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平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平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江原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咸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咸北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合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今日財界 十三日

# 鐘紡配當二割据置

【東京電話同盟】鐘紡에서는 十三日 決算重役會를 開하고 當期利益金 [illegible] 配當은 從來와 同樣 年二割으로 据置하기로 決定하엿다

# 鐘淵實業七分据置

【東京電話同盟】鐘淵實業에서는 十五日의 重役會에서 配當을 年七分据置로 決定하엿다

# 株式 和平說로 反撥
## 前場堅調

# 今日의市勢 十三日

# 今後動向注視

# 後場上進

# 現物保合

# 海産物

# 果物

# 菜蔬

# 京城物價 十三日

# 今日現株市勢 (正午)

# 海外經濟 十二日

# 銀行券 十二日

# 金利 手形交換

# 對外爲替

# 株式

# 生糸

# 綿布

# 棉花

# 鯡油粕·麥粉

許可 總督府
金銀買
金銀賣買會社
京城南大門通一丁目一九五
(黃金町入口)
受引 金地金·料底吹灰·化金

# 三國志 【214】
韓龍雲 譯
熊超 畫

**孔明의試金石(三)**

현덕이 공명을 얻은뒤로 스승의예로 대접한대 관장 두사람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말하되 『내가 이미아노니 형장은 근심치 마소서』

현덕은 유표를 사례하고 신야로 돌아가고 유표는 유기로 하여금 군사삼천을 거느려 강하를 지키게하였다.

조조가 삼공(三公)의 벼슬을 파하고 스스로 겸하고 모개로 동조연(東曹掾)을삼고 최염으로 서조연을삼고 사마의(司馬懿)로 문학연(文學掾)을 삼았다. 사마의 자는 중달(仲達)이니 하내 사람이라 영수태수 사마준(雋)의 손자요 경조윤(京兆尹) 사마방(防)의 아들이오 주부 사마랑(朗)의 아우라 그로부터 문무 제관이 크게 갖추었다. 조조가 장수를 모으고 남으로 칠일을 상의할새 하후돈이 말하되 『근일에 들으매 유비가 신야에있어서 날마다 군사를 교련하니 반드시 후환이될지니 속히 도모하게하소서』

조조가 하후돈으로 도독을 삼고 우금, 이전 하후란(蘭)한호(韓浩)로 부장을삼아 군사십만

『수공은 권대한청이 업서 다 만 이런것만 영접나마』

현덕이 모사 만는것을 땅에 떨치고 『내가 이러것으로 근심을 잇고사 하미루라』

『주공이 스스로 헤아리건대 조조에게 비하면 어떠하노라』

『갓지 못하노라』

『유비가 공명을 얻은것은 고기가 물을 얻은것 같으니 두 아우는 다시 말하지말라』

관우 장비가 이말을 듣고 물러가니라.

『수공의 군사는 수천인에 지나지 못하니 만일 조조 군사가 이르면 어떠케 대적하리오』

『내가정히 그일을 근심하나 조도리가 업노라』

『속히 민병을 모집하소서 내가 스스로 가리치면 가히 대적하리로다』

현덕이 신야의 백성을 모집하야 삼천인을 어드매 공명이 아침저녁으로 진법을 가리치더니 홀연히 보하되 조조가 하후돈으로 군사십만을 거느리고 신야로 짓처온다 하거늘

장비가 운장에게 말하되 『가히 공명을 보내어 대적하게 하는것이 편하리라』

현덕이 말하되 『지혜는 공명을 힘입고 용맹은 두아우를 기다리거늘 어찌 미루리오』

『형님이 어찌물을 보내지 안나니잇고』

『하후돈이 군사를 거느리고 어르니 어떠케 대적하리오』

『다만 두려워하건대 관장두사람이 나의 호령을 듯지아니할가 하오니 주공이 나로하야금 군사를 거느리게 하려면 칼과인을 주소서』

현덕이 곳명에게 칼과인을 주어 공명이 여러장수를 모으고 영을 듣게하매 장비가운장

다러 일러 『아직 영을드르러가서 어떠케 하는가를 보리라』

『유비는 영웅이오 지금또 제갈량으로 군사를 삼앗으니가 범이 날개를 더한것이라』

하후돈이 말하되 『유비는 쥐기튼무리라 내가 반드시 사로잡으리라』

서서가 말하되 『장군은 유현덕을 가벼히 보지 말자라 이제 현덕이 제갈량을 어덧으니 범이 날개난것가트니다』

조조가 말하되 『제갈량은 어떤사람이뇨』

서서가 말하되 『제갈량의 자는 공명이오 도호는 와룡선생이니 경천위지하는 재조와 귀신을 측량하는 계책이 잇서서 참으로 당세의 기이한 재조라 가히 적게볼수가 업나니라』

『내가 어찌 감히 제갈량을 당하리오 나는 개똥불과 갓고 제갈량은 밝은달과 가트니라』

하후돈이 말하되 『원직의 말이 틀리도다 나는 제갈량을 초개가치 보나니 만일 한번 싸움에 유비와 제갈량을 사로잡지 못하면 원컨대 머리를베어 승상에게드리리라』

조조가 말하되 『네가 일즉이 첩서를 보하야 나의마음을 위로하라』

하후돈이 분연히 사례하고 군사를 이끌고 행하였다.